

자성과 쇄신 결사에 뜻모아 힘모아

조계종 산하기관 및 단체 동참의사 밝혀

조계종이 추진 중인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 운동에 전국비구니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등 종단 산하 기관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 신도단체의 동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총신)은 2월 15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사업계획을 '나눔 결사 실천의 중추'로 설정한다"면서 "사람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한 불교사회복지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재단은 교구본사와 사찰을 자비나눔 실천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나눔결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사회복지재단은 140여 산하 시설 및 교계 사회복지법인, 교구본사 등을 중심으로 교구본사별 사회복지 발전 모색을 위한 연합회를 열어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시설유치를 적극지원한다.

총신 스님은 "불교의 유행·무형의 자산 활용을 통한 신성장 동력으로서 정신·생태·문화복지 차원에서 불교사회복지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장을 마련하겠다. 이를 자비나눔의 주요영역으로 확장하는 2030 미래발전 의제를 수립하기 위해 재단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신묘년 재가불자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행사에서 중앙신도회는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중앙신도회 실천위원회(상임위원장 손안식)"를 출범시켜 자성과 쇄신을 통해 민족문화수호의 새 장을 열 것을 다짐했다.

손안식 상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문화수호를 위해 기금마련은 필수적이다. 지난해 2011년도 예산안 단축 조치로 2011년도 예산안 단축 조치로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 민족문화수호기금을 모금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천위원회는 민족문화수호기금 마련을 위해 단계별 모금 목표를 설정·추진해 2011년 목표 모금액을 8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앞선 11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성명을 통해 종단의 '자정과 쇄신 결사'에 솔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비구니회는 성명서에서 "한국불교는 안타깝게도 외부 의존적 관행과 각종 법령에 의한 규제로 자수성가 되었고, 국민의 삶과 함께 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이 한국 정부와 정치권으로 하여금 전통문화와 불교를 훼손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비구니회는 "오늘날 한국불교는 시대와 사회의 고통을 보살행으로 보듬을 것을 요구받고 있다. 전국비구니회가 앞장서 빛나는 수행전통과 구도행을 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의 결사로 승화해 현대인들의 삶에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비구니회는 이날 성명 발표에 이어 각 문중과 사찰, 모임별로 5대 결사에 대한 실천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같은 날,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이하 공불련)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묘년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하복동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자승 스님이 천명한 자성과 쇄신을 위한 종단의 5대 결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17일,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이동식)는 "조성과 쇄신 결사 제안을 지지합니다" 제하의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불교언론인회는 선언문에서 "자성과 쇄신결사는 위기에 처한 한국불교를 중흥시킬 패자이다. 언론인 자체 대중공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불교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민족문화에 대한 예곡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섭·이나은 기자

4대강 곳곳에서 민족문화수호

조계종 민족문화수호위원회 낙단보서 1080배 정진

조계종 민족문화수호위원회(위원장 영달)는 2월 18일 낙동강 마애불이 발견된 낙단보 공사현장을 비롯해 4대강 일대에서 '생명살림 민생안정'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1080배 정진 및 생명살림방생법회를 봉행했다.

낙단보에서 진행된 1080배 정진 법회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중무원을 비롯해 의성 고운사, 구미 원각사, 대둔사 등 지역사찰 불자 총 300여 명이 동참했다.

정진에 앞서 조계종 교육원장 현웅 스님은 "이 강줄기 자리 자리에는 그동안 못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보살들의 원력이 녹아 있다.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을 되새기고 또 여기에 낙단보 마애부처님이 나투신 뜻을 되돌아보

노덕현 기자



낙단보 공사현장에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이 민족문화수호를 발원하고 있다.

5대결사 점검② 문화결사

'과거'에 멈춰버린 문화결사의 시계추

전통 문화 비중 지나쳐 현대적 발전 방해 지적

조계종의 5대 결사 중 하나인 문화결사에는 >전통문화 보존정책 수립(규제법령 폐지 및 개정) >전통문화 관련 현안 대응 >민족문화 보존 범국민 캠페인(훼손 문화재 복원 모연)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문화결사 주요 내용을 놓고 불교계 안팎의 전문가들은 전통문화 일반도의 문화 결사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전통 문화를 주요 내용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올해로 조성 1000년을 맞는 대장경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김영국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 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전통문화 현안이 무엇인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 결사에 이런 것을 제시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문화결사에서 중요한 것이 기록권 포기라고 강조하면서, 종단의 결단력에 의문을 나타냈다.

김영국 위원은 "전통문화 규제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법령 일원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각 법령에 따른 지원도 축소된다. 결

국 수익감소로 이어지는 문제를 종단이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라고 지적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승가대 교육을 개편해 현대 스님들도 스스로 불교 문화재를 유지·보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문화재 보존·발전은 어렵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들은 올해 대장경 조성 1000년을 맞아 각종 축제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정작 조계종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축제 조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을 뿐 종단이 대장경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결사와 관련해 문화부는 현재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계획안에는 '지역 불교 문화재 관심 갖기' '일상 용품 불교 문화상품으로 사용하기' '불서 읽고 독후감 쓰기' 등 불교를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조계종 문화부 심주원 팀장은 "문화결사의 구체적인 방향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프로그램에서 보완된다. 대장경은 문화부에서 전시회를 논의 중이며 5대 결사가 확정된 뒤 각 부서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기범 기자

"내 욕심 버려야 다른이와 화합한다"

조계종 원로의원 고산 스님 "5대결사 잘하고 있다"



조계종 원로의원 고산 스님이 종단이 진행 중인 '자정과 쇄신을 위

한 5대 결사'에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고산 스님은 2월 16일 하동 쌍계사 방丈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교인이라면 결사는 당연한 것으로 이번 결사는 불교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으로 세계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수행 없이는 계정에 삼학도 없다. 5대 결사 중 수행결사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쌓는 것과 같다"며 "5대 결사 중 수행결사를 강조했다."

고산 스님은 사자를 죽이는 '사

자중'을 예로 들며 결사에 앞서 종단 내부의 결속과 단결도 강조했다.

스님은 "모든 일은 제 욕심만 채우려하면서 경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발발한다. 욕심을 없애는 일이 바로 평화"라며 총무원장 제임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명동성당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펼친 화동책을 소개했다.

고산 스님은 "내 욕심을 버려야 다른 이와 유대를 쌓아 화합하고 평화도 도래한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동국대 이사 정련·호성 스님 선임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에 현 이사장 정련 스님(내원정사 주지)과 호성 스님(교운사 주지)이 선임됐다. 동국대(이사장 정련)는 2월 15일 제258차 이사회의를 열고 7일로 임기 만료된 개방이사 해림 스님 후임으로 호성 스님을 선임하고, 3월 11일 임기만료되는 정련 스님은 재선임됐다.

이에 앞서 동국대학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는 해림 스님 후임 이사 후보로 호성 스님과 정련 스님(낙산사 회주)을, 정련 스님 후임 이사후보로는 정련 스님과 정인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을 추천한 바 있다.



정련 스님 호성 스님

인 스님이 이사 후보를 사퇴한데 대해 교계 일각에서는 동국대 이사 영달 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동국대 차기 이사장 선출은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정련 스님의 재임이 유력하다.

조동섭 기자

박규원 만평

불소식

조계종-대교종 50년 분규 종식

선암사

立春大吉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



서울불교문화대학 Seoul Buddhist Culture College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승가학과(2년과정) 주간반 / 인터넷반

스님들께 수행의 바른 일정 속에서 불교 교육의 원을 실천하여, 체계적인 불교사상과 의식을 겸할 수 있는 교육의 장에서 5기 승가학과 학인을 모집합니다. 강원도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강의와 교재 최우수 교수진으로, 스님이 라면 반드시 익혀야 할 과목들을 선정하였고 2011년 원전강독과 월선 보강된 불교 의식 교육을 선보일 본 대학의 입학에 스님들께 추천합니다.

■ 교육과정 소개 ■

구분	1학기	2학기
1학년	법화경강의, 근본불교사상, 불교의식, 불교경전개요, 초발심자경문	법화경강의, 인도불교사, 불교의식, 대승기신론
2학년	법화경강의, 중국불교사, 불교의식, 금강경강의, 유식·종관학	법화경강의, 천태소지관(원전강독), 화엄사상, 불교의식
특강	포교방법론, 비교종교학, 대승기신론, 불교사회복지론, 불교상담론	

*졸업자격 : 50% 이상 출석한 분만 졸업가능 (인터넷반은 인터넷으로 출석체크)

▶ 강의시간표 (1학년 1학기) - 주간반 기준

구분	시 간	월 화 수 목	금	
			1,3,5주	2,4주
1교시	오후 2시~3시 20분		법화경 입문	불교경전개요 초발심자경문
2교시	오후 3시30분~5시		불교의식	근본불교

■ 신입생 모집 : 총 60명 ■

구분	주간반 30명	인터넷반 30명
수업료	53만원(한 학기 분)	55만원(한 학기 분)
	입학금 10만원(입학식 1번만 납입)	

*주간반 개근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인터넷반은 인터넷으로만 수강 가능합니다.

- ▶ 응시자격 : 불교 성직자 교육을 원하시는 모든 승려, 법사, 행자(단, 은사 추천 시)
- ▶ 특 전 : 1) 2학년 과정 이수 후 일본 유수 불교대학 입학 추천 2)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추천

불교학과(6개월과정) 주간반 / 인터넷반

일반불자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불교' 라는 교육이념 아래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 일반인들이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7기 졸업생 500여명을 배출하였습니다. 2011년 상반기 불교를 바르게 알고 알리는 불자들을 양성하는 본 대학에 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내 마땅히 중생의 고통을 편안케 하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전달하도록 일깨워 줄 소중한 인연도량에 입학에 추천합니다.

■ 교육과정 소개 ■

▶ 교과목 소개 - 6개월 과정

교 과 목	강의 소개
근본불교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학 교수님으로부터 불교를 학문적, 철학적 논리로 보면서 초기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까지 전 과정을 배우는 강좌
불교신행강좌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는 수행의 가르침을 안내해 드리는 쉽고 재미있는 불교 강좌
불교문화와사회	불교가 우주를 포섭하고 있음을 기초 교리에서 공부했다면 사회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속의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의 진리를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강좌

▶ 강의 시간표 - 주간반 기준

구분	시 간	월 화 수 목	금	
			1,3,5주	2,4주
1교시	오후 2시~3시20분		불교신행강좌	불교문화와 사회
2교시	오후 3시30분~5시		근본불교 / 인도불교사	

■ 신입생 모집 : 총 120명 ■

구분	주간반 60명	인터넷반 60명
수업료	9만원	9만원

*인터넷반은 인터넷으로만 수강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바른 마음을 내신 모든 분들

■ 교수진 소개 ■

교 과 목	교 수	소 개
대승기신론	이명래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 일본 고마자와대학 박사,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불교학회 이사장 역임
법화경 강의	박종교 교수	서울대학교 졸업, 동국대학 사범대학 부교사 역임,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역임, 현 동산불교대학 교수
근본불교, 금강경	최봉수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 대학원 불교학 석·박사, 인터넷 불교대학 지도교수
불교학개론, 중국불교사	신규탁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 대학원 중국철학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인도·중국철학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
불교의식 강의	해담 스님	1992년 인문학계 정기광 스님 법상좌, 법배·장엄부문 문화재 이수자
초발심자경문	운산 스님	전 강원 강사, 원전강독 강의
유식·종관학	양승규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 대학원 불교학 석·박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중앙승가대학 강의, 티벳불교 전공
경전개설	이동형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 대학원 금속공학 석·박사, 신학원(信樂苑)에서 배우 법화경 강의
불교신행강좌	여여 스님	불교학과 불교신행, 불교문화와 사회 강의
특 강		홍파학장임을 비롯한 교계 최상의 선지식, 교수진을 모신 강의 - 경장, 율장, 논장 및 사회 전반에 대하여 강의 주제에 맞는 선지식과 교수진 초청 예정

■ 접수 안내 ■

- ▶ 접수기간 : 2011년 3월 8일 까지
- ▶ 제출서류 : 1)입학원서(소정양식)1부 2)주민등록등본 1통 3)사번(반명함판) 2매
- ▶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고)
- ▶ 입학일시 : 2011년 3월 10일 금요일 오후 1시
- ▶ 원서 교부 접수 및 문의처 :
 - 1) 교 학 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 178-3번지 (우)110-550
 - 2) 연 락 처 : 관음중 종립 서울불교문화대학 교학국 Tel 02)763-3001(9909) Fax 02)763-5851
 - 3) 홈페이지 : http://www.seoulbcc.kr (입학원서 다운로드)
 - 4) E-mail : yeodiamond@naver.com madgod@empal.com